

자연재해 대비 선제 대응 총력 외식산업 발전 방안 모색

임실군, 재해 취약지역 집중 점검 등 장마철 안전관리 대책 마련

임실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과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상습 침수구역과 산사태 취약지역, 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그러면서 “장마철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수시로 점검활동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8일 군은 이진관 부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해인 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주관부서인 안전관리과와 협업부서인 행정지원실, 홍보담당관, 주민복지과, 청소위생과, 농업축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부서별 재난취약지역과 시설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복구 정비 및 인력 등 재난 관련 각종 관리 현황, 재난피해 예방을 위



임실군은 18일 이진관 부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해인 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한 예찰 및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논의하고, 만전을 다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앞선 12일에는 이진관 부군수를 중심으로 주요 산사태 취약지역,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배수펌프장, 우수 저류시설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부군수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하천 내 퇴적토, 지장물, 가도 등을 사전 정비하여 유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방 자체

확보 현황 및 각종 시설물의 가동 상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이 장마철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 문자와 전광판,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장마철을 맞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찰과 대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농촌진흥청 개발 보텍스 튜브 적용 농업용 에어냉각조끼 보급

임실군이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보텍스 튜브 적용 에어냉각조끼를 보급하여,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청운시설원예작목반(토마토 재배) 12개 농가에 에어냉각조끼와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세트(보냉병, 보냉가방 등)를 지원했다.

보텍스 튜브 에어냉각조끼는 에어펌프의 공기를 보텍스 튜브를 통해

유입시켜 뜨거운 공기는 배출하고 차가운 공기만 초기 내부에 분사함으로써, 의복 내부 온도와 습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이 임실군 청운면에 위치한 토마토씨를농장을 방문하여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강천산군립공원 11월 8일까지 야간개장

순창군은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군립공원에서 11월 8일까지 야간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휴가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일 야간개장을 실시해 무더위를 피해 순창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야간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마지막 입장 시간은 오후 8시 30분, 퇴장 마감은 오후 9시 30분이다.

탐방 가능 구간은 강천산 매표소에서 천우폭포까지 약 1.3km로, 경사가



완만하고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외식업 관계자들과 간담회 가져

최경식 남원시장은 18일, 관내 외식업협회 관계자들과 ‘춘향쌔 톡! 톡!’ 지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외식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시장 방향과 외식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원시 외식업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남원시 외식업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남원시지부(백청자 지부장)로, 총 99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임원진과 일반회원 등 33명이 참석,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함양음 캐리커를 활용한 1회용 알차기 제작 지원, △경의상가 청년몰 먹거리 운영과 기존 상권의 공존 방안, △이주여성 등과의 인력 수급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건의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외식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의 맛과 정서를 전하는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남원의 맛은 곧 남원의 첫인상이라며, 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외식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외식업계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시는 위생, 경영환경 개선, 식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통합돌봄 성공 정착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18일, 남원의료원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는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보건복지 관련기관 실무자,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 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 향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실행전략 등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권혜정 통합돌봄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법안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통합돌봄 실무자들이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AI로 디지털 작가되다’ 신청자 모집

남원시는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디지털 사회 전환을 지원하고자 SW/ICT 특강 ‘AI로 디지털 작가되다’ 신청자를 전폭특별자치도 및 지리산권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모집한다.

지난 4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프롬프트 활용법을 중심으로 한 실전 특강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Book Creator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워터마크, 만드는 나만의 스토리 구성부

터 Canva AI를 활용한 SNS 콘텐츠 이미지 생성을 하고, Gemini, Chat GPT 등 다양한 인공지능(AI)들을 함께 활용하며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는 물론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강은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 SW 미래채움 전북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순창소방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순창군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창군청 교통단속 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동시에 추진된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정차 근절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단속에는 소방공무원 2명과 지자체 단속공무원 1명이 참여해, 교통단속 차량에 소방출동로 담당자를 동승시키는 등 실요성 있는 단속을 벌였다. 특히 소방출동로 확보에 취약한 반북민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필요 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병행 신고도 이루어졌다.

임한호 대응구조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27회 순창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가 주관하는 제27회 순창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18일 순창군 공설운동장 게이트볼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참가선수와 최영일 순창군수, 순종석 순창군의회의장 등 내빈포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로 제27회를 맞이하는 순창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많은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전통 있는 생활스포츠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순창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유지를 위해 어르신들의 생활스포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